KOMSA MAGAZINE

해인지

2024 Summer Vol.58

KOMSA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2024 Summer | vol.58

스마트Sea, You Again!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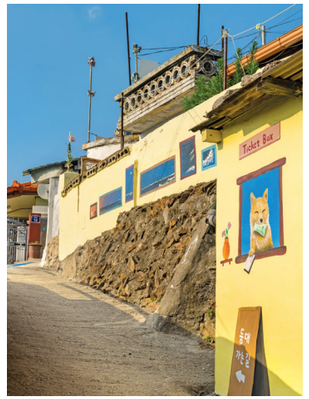
VOL.58

해안선 웹진 바로가기

해맑은 바다 씨

04
바다의 인사
푸른 동해를
더욱 푸르게

08
바다 옆 골목
어촌마을 감성골목
논골담길



발행인 김준석 이사장
발행일 2024년 7월 19일(통권 58호, 비매품)
발행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27(아름동)
전 화 044-330-2380
홈페이지 www.komsa.or.kr
기획·디자인·인쇄 (주)케이에스센세이션

안전한 콤사 씨



16
스마트 콤사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를 위한
스마트한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18
KOMSA 줌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출범 5주년·설립 45주년 기념식

22
현장 속으로
동해지사&
동해운항관리센터

28
칭찬이 트렌드
친애하는 나의 동료에게

30
주인공 나야 나
본사 기획조정실
이나영 대리

선물인 문화 씨

34
어촌리 가다
보령 삽시도

40
바다말 이야기
로그인·로그아웃이
바다에서 유래됐다고?

42
어시장 나들이
묵호항수산시장

46
싱싱한 식당
동해안회대게도매센터

48
KOMSA 뉴스

49
KOMSA 네트워크

50
이벤트 안내

글 최선주 사진 정우철

푸른 동해를 더욱 푸르게





끝을 모르고 펼쳐진 여름날의 동해. 찬란히 빛나는 태양을 그대로 품어서인지 다른 계절보다 유독 빛이 납니다. 맑은 하늘, 푸른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에도 안도감이 깃듭니다.
맑은 날씨 덕분에 이 여름, 오롯이 동해를 만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겠지요. 동해의 KOMSA 사람들은 이들의 여행길이 안녕(安寧)하기를 누구보다도 바랍니다. 그 바람 하나로 이 푸른 바다에서 더욱 똑똑하고 민첩하게 관리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푸른 동해를 더욱 푸르게 만들어줄 KOMSA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여름, 여기서라면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한 바다의 미래를 위해







KOMSA의 항해는 계속됩니다



올여름은 KOMSA가 출범한 지 5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1979년 한국어선협회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온 KOMSA의 역사는 동해의 수심(水深)을 닮고자 합니다. 깊은 세월 쌓아온 바다 안전에 관한 노하우로 어민과 여행객들이 편안하게 이곳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 서남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운영으로 그 일대 바다에 활기를 찾아줬듯, 향후 동해권역에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를 건립해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거센 파도가 우리 앞에 밀려올지라도, KOMSA는 멈추지 않고 항해하겠습니다. 바다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라면 새로운 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KOMSA의 이유 있는 항해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동해처럼 푸르게 빛날 KOMSA의 미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글 박영화 **사진** 정우철

묵호등대마을의
비좁고 가파른 골목 끝,
그곳에서 마주한 커다란 등대,
등대에서 바라본 묵호는
환하게 불을 켠 오징어잡이배로
어느 밤보다 화려했다.
낮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그려진 소박한 벽화들,
논골담길을 따라 이어지는
마을 이야기.

묵호등대마을 논골담길

DONGHAE MUKHO
NON GOL DAM

어촌마을에 그려진 논골담길 벽화

검은바다, 묵호

'묵호(墨湖)'라는 지명은 조선 말기 강릉 부사 이유응이 지은 것으로, 바닷가에 물새가 유독 많이 모여들어 '새도 검고 바다도 검다'라는 의미라고 한다.

1937년 개항한 묵호항은 1940년대 국제무역항으로 성장해 1970년대까지 동해안의 어업기지로 전성기를 누렸다. 항구는 오징어잡이 배 불빛으로 밤에도 대낮처럼 환했고, 묵호항에 일거리가 넘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골목길을 따라 물이 흐르다, 논골

동해에서 잡은 신선한 수산물이 마을 전체에 넘쳐 났다. 사람들은 판매할 생선을 건조하기 위해 지게나 고무 대야에 담아 덕장(물고기를 말리는 구조물이 있는 곳)으로 옮겼고, 그 과정에서 떨어진 물이 골목길을 따라 흘러내렸다. 그 모습이 마치 모내기를 준비하는 논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그때부터 그곳을 '논골'이라고 불렀고, 항상 물에 젖어 있는 탓에 '마누라와 남편은 없어도 살지만 장화 없이는 못 산다'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한다.

동해 경제를 이끌 만큼 번성했던 묵호항이었지만 동해항이 개항하면서 규모가 점차 줄어들었고, 사람들도 새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 호황을 누렸던 묵호항은 그렇게 쇠락해 갔다.

어촌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논골담길 벽화

회색빛이었던 동네가 다시 생기를 찾은 건 2010년, 골목길에 벽화를 그리면서부터다. 고된 뱃일을 마친 사람들, 노가리 안주로 하루의 피로를 풀었던 대폿집, 큰 보따리를 머리에 인 할머니, 묵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오징어와 명태, 문어, 생필품이었던 장화 등 마을 사람들의 삶이 논골담길 곳곳에 그림으로 그려졌다.

논골담길은 네 갈래로 나뉘어 있는데, '논골1길'은 묵호의 옛이야기를, '논골2길'은 희망의 이야기를, '논골3길'은 황금기를 보냈던 묵호의 과거 모습과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논골4길'은 새로운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담아냈다.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완성했다는 사실이 특별하다.

동해에서 잡은
신선한 수산물이
마을 전체에 넘쳐 났다

논골담길로 오시우야

골목 투어에 나서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논골담길 핫한 장소들.





DONGHAE MUKHO

NONGOLDAM MAP

1 묵호등대
2 등대그집
3 말똥도나스 동해
4 내게와, 묵호
5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논골담길, 어서 오시우야~



1 묵호등대

논골담길 시작점에서 10여 분 오르다 보면 정상에 있는 묵호등대에 다다른다. 묵호항 일대를 오가는 오징어잡이배를 비추었던 묵호등대는 1963년에 마을 주민들이 지게와 고무대야에 자갈과 모래, 시멘트를 담아 나르며 건립한, 이 마을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3층 구조의 내부 나선형 계단으로, 전망대에 오르면 묵호항의 경관은 물론 동해, 두타산, 청옥산 등의 백두대간 봉우리도 볼 수 있다. 묵호등대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상속자들>, <찬란한 유산> 등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 장소로도 많이 등장했다.

동해시 해맞이길 289



2 등대그집

논골담길의 유일한 기념품가게인 등대그집을 보지 않고 지나치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외관이 눈에 띄는 곳이다. 우뚝 솟은 빨간 등대와 알록달록한 집 모양의 소품으로 꾸며져 있는데, 마치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할 것 같은 외관에 한 번, 주인장이 손수 만들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게 된다. 내부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빼곡하게 전시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관광기념품은 물론 주인장이 직접 만든 독특한 수공예품도 많으니 들러보자.

동해시 논골1길 17-6



3 말똥도나스 동해

요즘 논골담길의 핫플레이스는 단연 '말똥도나스'다. 그동안 주민들과 여행객들의 쉼터가 되어주었던 논골카페 대신 말똥도나스가 새롭게 등장했는데, 오픈한지 한 달이 조금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SNS에서 논골담길 핫플레이스로 뜨겁게 주목받고 있다. 재밌는 모양의 도넛과 화려한 인테리어가 사진 찍기 좋아하는 MZ세대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 핑크, 블루, 오렌지가 조화를 이룬 인테리어는 마치 놀이동산에 온 듯한 느낌까지 든다.
말똥우유 도넛, 말똥초코 도넛 등 10여 개의 도넛과 논골 딸기밭, 말똥이는 인어공주, 묵호갈매기, 그시절 묵호 단팥빵 등 이곳만의 특징이 더해진 도넛도 판매 중이다. 음료도 독특한데, 말돈소금과 아몬드로 만든 크림라테인 씨솔트슈페너, 동해의 시원함을 담은 소다 맛 셰이크인 동해셰이크가 인기다. 드넓은 동해 바다와 아름다운 동해시를 한눈에 감상하면서 달콤한 도넛을 즐기고 싶다면 필수 코스다.

동해시 논골1길 24





4

내게와, 묵호

묵호등대가 지척에서 보이는 숙소 겸 카페인 내게와, 묵호. 1층은 카페로 꾸며져 있는데, 공간이 그리 크지는 않아 연인과 또는 혼자 들러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머무르기에 좋다. 2층은 숙소로 사용 중이다. 커다란 통유리창으로 보이는 묵호항의 모습이 너무나도 좋은, 혼자만 알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숙소다. 특히 밤 야경이 환상적인데, 삼면이 바다로 펼쳐져 있어 마치 바다를 품은 듯한 느낌이다. 루프톱에서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우뚝 선 등대의 모습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한번쯤 이곳에 머물렀다면 분명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매력 가득한, 선물 같은 숙소다.

동해시 해맞이길 286



5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동해의 맑고 푸른 바다를 닮은 듯한 도깨비가 있는 곳, 도째비골 스카이밸리다. 도째비는 도깨비의 강원도 방언으로, 비 내리는 밤이면 묵호항 어시장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푸른 불빛이 자주 출몰했다는 구전에 따라 도째비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스카이밸리 내에서도 동해를 향해 곧고 길게 뻗은 높이 59m 스카이워크에 관광객이 붐비는데, 일부 구간을 강화유리로 제작해 마치 허공을 걷는 것처럼 아찔한 기분이 든다. 스카이 사이클, 원통 슬라이드를 미끄러져 약 30m 아래로 내려가는 자이언트 슬라이드 등 바다를 배경으로 짜릿한 체험도 즐길 수 있다.

동해시 묵호진동 2-109



벽화마을보다는 담화마을!

#묵호벽스 #만복이네 #묵호극장 #묵호상회 #장화 #오징어

START









담장의 벽화에는 묵호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바닷가 마을 사람들의 애환이 담긴 아기자기한 그림들





묵호벽스와 묵호극장, 오징어 말리는 풍경이 정겨운 동네!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를 위한
스마트한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MTIS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은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로, 선제적 해양교통 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해 과거·현재·미래의 해양교통안전 정보 분석 서비스다. 그간 수치와 표로 제공되던 해양사고 현황을 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도표 및 그래프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 이용방법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누리집(https://mtis.komsa.or.kr) 접속



MTIS 모바일 앱 출시



안드로이드 아이폰 IOS

안드로이드 폰인 경우, 구글 플레이(Google Play) 스토어
아이폰인 경우, 앱(App) 스토어를 통해 MTIS 앱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PATIS에는!

여객선 교통정보(PATIS)
오늘 배가 뜨는지, 내가 탄 배가 어디쯤 왔는지
궁금하다면?! PATIS와 함께 여객선 타고 섬 여행!

해양사고 현황
한눈에 알아보는 해양사고
종합정보!

사고 위험 알리미
사고 위험 알림 받고 위험한 해역은
주의 운항!

교통 혼잡 정보
혼잡한 해역은 선박 운항도
스마트하게!



PATIS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PATIS)는 PAssenger ship Transportation Information Service의 약자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운항 정보와 해양수산부의 선박 위치정보(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등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한다. 즉, 여객선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지도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개발된 서비스다. 그동안 바다의 여객선 운행정보를 승선객이 여객선사나 연안여객선터미널에 따로 문의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한 것이다.

▶ 이용방법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누리집(https://mtis.komsa.or.kr) 접속 →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PATIS) 메뉴 → '일일 운항정보' 조회 후 출발·도착 시각, 실시간 위치, 기상정보 등 이용



글 최선주 사진 정우철 영상 인프로덕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출범 5주년·설립 45주년 기념식

앞으로의 10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출범 5주년·설립 45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세종 본사에서 기념식을 열고, 그간의 성과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의 KOMSA 발자취를 돌아보고 더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기 위해 결의를 다졌던 순간에 함께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기념식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KOMSA야 축하해!

지난 6월 28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본사가 위치한 세종 아름동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전신인 한국어선협회 설립 45주년과 2019년 출범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5주년을 맞이해 기념식이 열린 것이다.

KOMSA인 모두가 주인공인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임직원은 강당을 빼곡히 채워 앉았다. 그리고 KOMSA의 유튜브 채널 '바다로'의 진행을 맡고 있는 기획조정실 이로운 아나운서의 사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었다.

국민의례 다음으로 이어진 김준석 이사장의 포상 시간. 설립 기념 직원과 유공 직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준석 이사장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사, 센터의 선박검사원, 운항관리자 직원들에게도 격려 부탁드린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진 '45주년 발자취 영상'을 함께 보며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영상에서는 임직원과 방송인 김국진의 축하 메시지가 흘러나와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KOMSA의 푸른 미래를 다짐하는 자리

그다음으로는 공단 임직원의 친환경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결의문 낭독이 이어졌다.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하기, 일상생활 속 걷기, 불필요한 전등 소등하기 등 친환경 탄소중립실천 수칙 10가지를 낭독하며 대내외에 'Green KOMSA'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또한 결의문을 통해 평소 깨끗한 바다, 행복한 바다, 투명한 바다를 위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경영 의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기념식의 모든 순간을 함께한 김준석 이사장은 "한국어선협회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낌없이 헌신해 온 선배님들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늘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해양수산
전 부문을 아우르는
전문성을 겸비한
공공기관으로서
목표를 향해 올곧게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임직원을 향해 "앞으로도 허심탄회한 소통과 화합,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며 당부하기도 했다. 김준석 이사장의 진심이 담긴 기념사에 임직원은 박수를 보냈다.

이어서 김준석 이사장, 송명섭 노조위원장, 운항정책실 정원찬 과장이 대표로 떡케이크를 자르며 KOMSA의 5주년을 축하했다. 참석한 운항정책실 정원찬 과장은 2019년 KOMSA가 출범한 해에 입사한 'KOMSA 둥이'로 직원들을 대표해 커팅식에 함께하게 되었다. 끝으로 자리에 함께한 전 임직원이 모여 사진을 찍으며 기념식은 마무리됐다.

한국어선협회부터 하면 50여 년의 세월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늘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해양수산 전 부문을 아우르는 전문성을 겸비한 공공기관으로서 목표를 향해 올곧게 나아갈 것이다. 앞으로의 KOMSA 역사를 써 내려갈 KOMSA인의 활약이 기대되는 바다.





한눈에 알아보는 KOMSA 출범 후 주요 변화

구 분	선박안전기술공단(2018년 기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2023년 기준)
설립 목적	선박의 안전 확보 선박·선박시설에 관한 기술 연구·개발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
사업 영역	선박검사,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선박안전 관련 기술 개발 등	기존 업무 + 해양교통안전 관련 교육·방송·기술개발·국제협력, 해양교통 안전진단 및 체계개선, 해양교통 및 선박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 등
주요 고객	선주, 어업인, 해운선사 등 해양 종사자 중심	해양 종사자 이외에 여객선 승객 등 해양 이용자로 확대
매출액	434억 원	878억 원
정원	418명	536명
조직 구성	3본부, 1연구원, 16실·센터(3팀), 15지사(3출장소), 11운항관리센터	4본부(1연구소), 16실·센터(4팀), 18지사(2출장소), 12운항관리센터
조직 구성 변화	✓ 고흥운항관리센터 개소(2020년) ✓ 울산출장소 → 울산지사 승격(2020년), 당진지사 개소(2022년), 중부지사 개소(2023년) ✓ 서남권,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개소(2023년) ✓ 전북지사 → 군산지사, 경북지사 → 포항지사로 명칭 변경 ✓ 부산지사 이전(2023년 5월) 목포지사 이전(2023년 5월) 인천지사 이전(2023년 6월)	







KOMSA의 스마트한 노력!

원격검사 구현
- 지역과 날씨 등 환경적 영향으로 인한 고객 불편 및 비용 손실 해소

선박검사 전자증서 발급
- 종이로만 가능했던 선박검사증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해 고객 편의 제고
- 평균 3~4일 걸리던 발급 기간 하루로 단축

해수호봇 구축
- 카카오와 협업해 대화형 AI챗봇 '해수호봇' 구축
- 카카오톡을 통해 24시간 365일 검사서비스 관련 정보 손쉽게 접근 가능
- 향후 검사신청, 여객선 실시간 운항정보 기능 등 추가 예정

글 최선주 사진 정우철

동해의 안전을 수호하는

해마다 여름이면 많은 이가 바다를 찾는다. 우리나라의 많은 바다 중에 여름날 가기 좋은 바다를 떠올린다면, 단연 동해가 아닐까. 바다색이 유독 맑아서 보는 것만으로도, 무더위가 사라지는 기분이 든다. 이 맑고 아름다운 동해에서 많은 사람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쉬어가기까지, 그 곁에는 동해의 KOMSA인들이 있었다.



동해지사 × 동해운항관리센터

One-Team의 저력

동해지사

검사 인력 부족으로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본연의 업무를 묵묵히 해나가는 동해, 속초, 주문진에 있는 10명의 직원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입니다. 아울러 동해지사에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는 강원도 지역 선박종사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_정해청 지사장







따로 또 같이하는 긴밀한 소통

동해지사 사무실이 조용하다. 사무실이 이토록 조용한 까닭은 동해지사의 검사원들 대부분이 현장에서 검사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거리 출장이 많은 동해지사 특성상 강원도 내 2개 지역에 출장소 및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서다.

"동해지사는 속초출장소, 강릉 주문진에 주문진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동해지사를 포함해 총 3개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소통과 협업이 중요한 곳입니다."

서로 흩어져 있는 만큼 정해청 지사장이 평소에도 가장 강조하는 것은 단연 소통이다. 흩어져 있기도 하고, 강원도 지역의 해안선 233km와 원거리인 철원, 원주 등의 지역 내수면에 있는 선박 대부분을 검사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긴밀하게 소통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속초출장소, 주문진사무소를 포함한 동해지사 직원들은 선박검사는 물론 선박상태평가 용역 등 협업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서로 소통하며 협력한다.

"우리 지사는 원거리 3곳에 사무실이 산재 되어 직원들도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간담회 실시 등 관련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여건이 녹록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직원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 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과도 긴밀히 소통하다

이렇듯 소통과 협력을 제1원칙으로 삼아서일까. 동해지사에는 최근 좋은 일이 있었다. 바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위를 차지한 것이다. 1위가 아님에도 동해지사 직원들에게는 매우 유의미한 성과였다.

"저희는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동해지사의 성적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올해 4월에 발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96.6이라는 점수로 전체 부서 중 2위를 차지했습니다."

동해, 속초, 주문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번 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찾아가는 고객간담회 실시 등 고객과의 소통의 끈을 놓지 않은 덕분이었다.

"직원들이 제 몫 이상을 해주고 있는 덕분에 작지만 강한 지사, 변방이지만 중심인 지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어진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공단의 모든 업무에 솔선수범해 전국 각 지사의 롤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꼼꼼한 선박검사 등을 통해 중대 해양사고 없는 안전한 바다, 깨끗한 동해바다를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협업 능력을 무기로 동해지사는 앞으로도 단단한 팀워크를 선보일 계획이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동해운항관리센터







묵호항에서 안전한 바닷길을 책임지다

동해운항관리센터에는 김민수 센터장, 민기현 대리, 김광현 대리 총 3명의 운항관리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묵호-울릉, 강릉-울릉 2개의 항로 및 씨스타1호, 씨스타5호 2개의 여객선을 대상으로 운항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중이다.

"저희가 운항관리하는 여객선은 울릉도·독도를 여행하는 관광객이 주로 이용합니다. 여행 비수기인 겨울철에는 날씨가 좋지 않아 4개월간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무 특성상 겨울이면 동해운항관리센터 직원들은 다른 지역의 운항관리센터로 파견 갔다가 봄이 되면 다시 동해로 돌아와 만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다시 만나게 되면 반가움을 감추지 못한다고.

"사실 겨울철뿐만 아니더라도 저희는 보통 대부분의 업무를 혼자 하고 있습니다. 동해운항관리센터와 강릉 파견지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혼자서 일하는 만큼, 남다른 책임감을 갖고 소통하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죠."

동해운항관리센터와 함께 언제나 '안전'하세요!

이들의 업무는 이른 아침부터 18시까지 바쁘게 돌아간다. "관리 및 점검뿐만 아니라 여객선 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SNS에 게시하는 것도 저희의 일입니다. 특히 여름처럼 이용객이 많아지는 계절에는 대국민 해양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안전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여객선 항로 및 기항지의 위해요소 발굴 및 제거, 여객선 이용객 통계 집계·분석, 여객선 관계기관과의 논의 등 여객선 안전에 관한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풍랑특보가 해제되더라도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는 위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측했던 것과 달라서 여객선 출항을 결정지었다가도 회항한 적도 있어요. 이럴 때마다 운항 결정을 더욱 신중하게 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매번 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각오를 다지지만, 작년부터 동해운항관리센터가 관리하는 항로인 울릉도 여행객이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동해운항관리센터는 늘 그 자리에서 운항관리업무를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안전에 대한 꾸준한 관리, 감독이 여객선 안전투자 소홀로 이어지는 불상사가 없도록 말이다.

"동해에서 근무하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맛집도 많고, 유명한 여행지도 많아요. 앞으로도 많은 분이 동해를 찾을 수 있도록 운항관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다 여행은 안전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만족스러움이 배가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동해운항관리센터 운항관리자들. 그들의 올곧음이 동해를 더욱 푸르게 만들어 가고 있다.



친애하는

나의 동료에게

돌이켜보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신없어서
주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조차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고마운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분명 그중에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동료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할 텐데요.
이번 기회에 동료에게 고마움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당신도, 동료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To.
본사 교통정책실
최진우 주임

최진우 연구원님께 이 기회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업무를 하면서 헤맬 때나,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조용히
다가와 챙겨주시거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항상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연구원님처럼
따뜻한 동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술받고 회복 중인데 얼른
쾌차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어요.
진우짱~! I miss you~!

From.
본사 교통정책실 **임민정 주임**

To.
부산지사
류진석 대리

2023년, 처음 부산지사에
발령이 났을 때부터 대리님은
저에게 한결같이 잘해주셨어요.
부산지사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죠. 늘 업무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주시고, 제게 필요한
자료까지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부산지사에 잘
적응해 근무하고 있네요. 한창 바쁠
때인데도 저의 질문에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리님 올
하반기도 잘 부탁드려요!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From.
부산지사 **김흥배 주임**

To.
본사 해양안전실
윤현우 부장

부장님은 저와 이전 부서에서
함께 근무하셨는데요. 저에게는
부장님과 함께 근무한 게 정말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저는 선박검사·관리 분야가
생소했었거든요. 그렇기에 질문도
많았죠. 부장님은 저의 다양한
질문에도 항상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부장님께서 오랜
시간 일하시며 쌓아온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 주신 덕분에
이해도 깊어지고, 분야에 흥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단의 발전을 위해
역량을 발휘하고 계시는 윤현우
부장님!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합니다~!

From.
본사 운항정책실 **정원찬 과장**

To.
인천지사
김민호 차장

우리 김민호 차장님은요!
첫인상은 냉철하시지만, 알고
보면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차장님께
이렇게나마 고마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사에서 검사원으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꼼꼼하게 검사하는
방법을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후배된 입장에서, 믿고 따를 수
있는 선배 검사원이 계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차장님께서 살신성인
가르쳐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회사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장님~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rom.
본사 정보보안실 **김희진 과장**

Dear
My Colleague

글 박영화 사진 정우철



호기심과 열정이 뜨겁고 나긋나긋한 KOMSA 제너럴리스트

이제부터 나영이는 영원히 행복할 거예요

기획조정실 이나영 대리

ESTP

재치 넘치는 행동파



- ○ 삶에 대한 열정
- ○ 자유를 갈망하고 새로운 도전을 사랑함
- ○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받는 일을 즐김
- ○ 설득과 토론을 좋아하는 편
- ○ 명확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을 선호
- ○ 솔루션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으로 보여주는 유형
- ○ 유머 감각이 있음
- ○ 사소한 변화도 감지하는 능력을 지님

Q___ KOMSA에서 어떤 일을 맡고 있나요?

2022년 6월 27일에 입사해서 이제 일한 지 2년 차입니다. 현재 기획조정실 홍보팀에서 언론홍보와 일반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홍보계획에 따라 각 부서에서 제출한 보도자료 초안을 고도화하고, 배포 일정을 조율하면서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외부에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소식지인 <해안선>의 제작과 관리 업무도 하는 중입니다.

Q___ 공단에 입사한 계기가 있나요?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면서 SOC, 교통 분야의 기관에 관심이 많았어요. 제 고향이 바다 도시인 여수여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대해 알게 되었고, 본사가 있는 충청도가 연고가 있는 곳이어서 자연스럽게 공단 입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Q___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저는 계획보다는 행동파인데요. 업무에 있어서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 편입니다. 출근하면 문서함과 메일함을 확인하고, 하루 업무계획을 다이어리에 작성합니다. 매일 같은 루틴은 아니지만, 주로 회의를 통해 정리된 주간 홍보계획에 따라 콘텐츠 방향을 논의하고, 홍보자료를 작성하고 있어요.

Q___ 근무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을 소개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은 기획, 예산, 홍보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각자 맡은 일을 열정적으로 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도, 웃음도, 정도 넘치는 곳이지요. 제가 기획조정실로 부서 이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바로 알겠더라고요. 특히 저희 홍보팀은 연령대가 비슷하다 보니 공감도 잘 됩니다.







궁금한 것들 물어보세요!

Q____ 행정직은 어떤 점이 가장 좋은가요?

행정직은 제너럴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기획, 예산, 재무, 인사, 평가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면서 종합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직 운영에 중요한 업무를 두루 경험하면서 저한테 맞는 분야를 찾고 있어요. 행정직 특성상 사업부서나 타 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일이 많은데요.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서툴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조금씩 알아가면서 재밌기도 하고, 일을 마무리할 때마다 성취감도 느낍니다. 아직은 노하우가 부족해 서툴지만,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더 스마트한 KOMSA인이 되겠습니다.

Q____다른 직군에 궁금한 점은 무엇인가요?

운항관리자들이 일하는 현장이 궁금합니다. 행정직으로서 다른 직렬 직원분들과 많이 소통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을 볼 수 있는 경험이 많지 않아서 더 궁금한 것 같습니다. 또 지역별로 위치해 있는 운항관리센터의 근무 분위기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Q____취미가 뭐예요?

집에서 쉬기보다는 여유가 생기면 운동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는 편이에요. '오늘은 집에 있어야지'라고 생각해도 결국 누군가와 약속을 잡아 저녁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하. 저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필라테스를 시작했는데요. 생각보다 어려운 운동이어서 당황했지만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Q____평소 좌우명은 무엇인가요?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하지 말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번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경우라면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지만, 최선을 다했다면 더는 후회하지 않고 결과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Q____어떤 목표를 갖고 있나요?

올해 스물아홉 살이거든요. 주변에서는 청춘이라고 부러워하시지만, 요즘 자주 피곤하고 쉽게 지치더라고요. 20대 중반까지는 대학생활을 즐기느라, 취업을 준비하느라 바빠서 건강관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마지막 20대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려고 하고 있어요. 단순히 체중감량보다는 건강하게 운동으로 체력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만들어서 더 행복한 이나영이 되겠습니다.^^

행정직의 매력은 무한대!



더 스마트한 KOMSA인이 될게요!

글·사진 진우석 여행작가

바다와 숨바꼭질하는 여름날의 동화

• 보령 삽시도 •

충남에 속한 원산도, 호도, 녹도, 외연도 등 여러 섬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은 삽시도. '명품 섬 BEST 10 사업'에 선정돼 삽시도 둘레길이 만들어져 걷기도 좋다. 둘레길 따라 울창한 해송 숲을 걸으며 삽시도 명소를 찾아보고, 노을 지는 상어바위 앞에서 해수욕을 즐겨보자.



삽시도 둘레길은 경관이 수려한 서쪽 해안에 나 있다. 면삽지, 물망터, 황금 곰솔 등
삽시도의 명소는 대부분 둘레길을 따라 만날 수 있다.





Sapsido

넓은 구릉과 고운 백사장을 품은 섬

삽시도는 충남 보령시 오천면에 속하는 섬이다. 이름은 생김새가 화살을 꽂은 활과 같다는 데에서 유래했다. 섬의 위치는 태안반도 안면도 남쪽으로 6km, 보령 대천항에서 서쪽으로 13.2km 떨어져 있다. 대천해변에서 보면 바다에 엎드린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 형상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삽시도는 큰산(붕구뎅이산)이 자리한 섬의 서쪽을 제외하면, 대부분 낮은 구릉을 이룬다. 삽시도 둘레길은 경관이 수려한 서쪽 해안에 나 있다. 면삽지, 물망터, 황금 곰솔 등 삽시도의 명소는 대부분 둘레길을 따라 만날 수 있다.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출발한 여객선은 유독 갈매기들이 많이 따른다. 새우깡을 들고 하늘로 뻗으면 갈매기가 날아와 귀신같이 새우깡만 물고 간다. 여객선의 뒤꽁무니를 졸졸 따르는 갈매기들이 안쓰럽다가도,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놀라운 비행 실력에 탄성이 절로 난다.

갈매기와 바다, 이름 모를 작은 섬들을 구경하다 보면 어느새 40분이 훌쩍 흘러 삽시도에 닿는다. 웃말 술뚱선착장에 내리자 펜션에서 나온 차들이 손님을 싣고 사라진다. 삽시도는 선착장 가까운 웃말에 초등학교, 보건소, 파출소 같은 공공기관 등이 몰려 있다. 술뚱선착장을 나와 진너머해수욕장을 찾아간다. 진너머해수욕장은 삽시도 여러 해수욕장 중에서 풍광 좋고 숙소가 많아 베이스캠프로 제격이다. 삽시도는 버스가 다니지 않아 걸어 다녀야 한다. 넓지 않아 유유자적 걸으면 된다. 마을 골목을 가로지르면 넓은 논이 펼쳐진다. 논길을 따르면 울창한 솔밭 언덕에 태창비치펜션이 서 있다. 그 아래가 진너머해수욕장이다.

둘레길 베이스캠프로 좋은 진너머해수욕장

삽시도 둘레길은 진너머해수욕장에서 밤섬해수욕장까지다. 일단 밤섬해수욕장으로 이동해, 진너머해수욕장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코스를 짰다. 그러면 들어가는 곳은 밤섬해수욕장 금송사가 된다. 밤섬해수욕장은 '해류가 끝나는 곳'이라 하여 '수루미해수욕장'으로도 부른다. 이곳은 1㎞에 이르는 넓은 백사장이 펼쳐지고 삽시도의 부속 섬인 불모도를 바라보고 있다.

금송사는 밤섬해수욕장 해송 숲에 자리한 자그마한 절집으로 진관스님이 거처하고 있다. 차를 한 잔 나누며, 삽시도의 문화와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으면 더욱 좋다. 진관스님은 삽시도의 숨은 비경인 황금 곰솔을 처음 세상에 알린 주인공이다.

둘레길은 금송사 앞에서 큰산으로 올라붙는다. 입구에 삽시도 안내도와 간이 화장실이 있다. 15분쯤 울창한 솔숲을 걸으면 삽시도에서 가장 남쪽 해변을 만난다. 해변으로 내려가는 길 울타리 안에 황금 곰솔이 있다.

황금 곰솔은 높이 15m, 가지 넓이 10m, 둘레 25cm인 약 60년생이다. 황금 곰솔 앞에서 나무를 못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름은 황금 곰솔이지만, 나무 전체가 황금색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잎에서 짙은 누런빛이 나는 정도이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말자. 우리나라에는 세 그루만 자생할 정도로 희귀



1 ——
금송사에서 오르면 만나는 능선 갈림길. 한 가족이 둘레길을 걷고 있다.

2 ——
삽시도로 가는 여객선에서 펼쳐지는 갈매기의 비행

3 ——
울창한 소나무 그늘과 잔디밭이 좋은 태창비치펜션

4 ——
우리나라에서 세 그루밖에 없는 황금 곰솔. 잎이 황금색이다.

한 소나무다.
황금 곰솔을 구경하고 나서는 '물망터' 이정표를 따른다. 완만한 내리막을 이리저리 돌아가면 작은 해변을 만난다. 물망터는 갯바위에서 샘솟는 약수를 말하는데, 해변 갯바위에 숨어 있다. 초행자가 찾기에 쉽지 않다. 진관스님에 의하면, 물망터는 삽시도에서 가장 성스러운 혈이라고 한다. 그래서 숨어 있다는 것. 썰물 때에만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신비롭다.

하루 2번 모세의 기적 일어나는 면삽지

물망터의 시원한 약수를 맛보고 다시 길을 나서면 호젓한 산길이 펼쳐진다. 산은 대부분 소나무와 참나무로 이루어졌지만, 간혹 소사나무도 볼 수 있다. 30분쯤 숲길을 걸으면, 면삽지로 내려가는 급경사 계단이 나온다. 조심조심 난간을 잡고 내려오면, 면삽지가 나온다.
면삽지는 물이 빠지면 나타나는 작은 무인도다. 밀물 때는 섬이었다가 바닷물이 빠지면 삽시도와 하나로 연결된다. 하루 두 번씩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셈이다. 삽시도와 면삽지를 이어주는 손바닥만한 해변은 양옆으로 바다를 접하고 있다. 삽시도 둘레길의 마지막 보물은 진너머해수욕장이다. 여름철에는 둘레길을 걷고 진너머해수욕장에 뛰어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해변의 상어바위 옆으로 시나브로 떨어지는 일몰은 삽시도의 마지막 선물이다. 시나브로 하늘과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일몰 속에서 즐기는 해수욕은 잊지 못할 즐거움과 낭만을 준다.



5


6

5 ——
상어바위 뒤로 넘어가는
진너머해수욕장의 일몰은
삽시도 최고의 절경이다.

6 ——
면삽지에는 많은 해식동굴이
뚫려 있다. 동굴 안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더 예쁘다.

7 ——
맑은소리를 내는 물망터
해변의 몽돌


7

여행 정보

삽시도 둘레길은 5km, 2시간쯤 걸린다. 물망터, 면삽지는 밀물 때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때를 맞춰야 한다.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www.khoa.go.kr)에서 조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교통
서울에서 대천까지는 기차가 편하다. 무궁화호가 2시간 40분쯤 걸린다.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에 삽시도 가는 배가 1일 3회 다닌다.

맛집과 먹거리
한일횟집과 삽시도회식당 등에서 활어회와 칼국수 등을 먹을 수 있다. 대천항 수산시장에서 다양한 활어회와 조개류를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도 팁!

정리 편집실

바다에서 온 인터넷 용어들!

海洋用語

로그인·로그아웃이 바다에서 유래됐다고?



바다와 인터넷, 언뜻 보면 서로 관련 없어 보이지만
의외로 공통점이 많다. 바로 인터넷 용어 가운데
바다에서 유래된 단어가 많다는 것.
바다와 인터넷은 무슨 관련이 있고, 바다에서 유래된
인터넷 용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정보의 바다를 항해하다

인터넷에 접속해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 서핑(surfing)한다고 표현한다. 인터넷이라는 드넓은 바다에서 파도를 타듯 정보를 찾으며 이 사이트에서 저 사이트로 이동한다는 데서 유래됐다. 1990년대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전에 보급됐던 웹 브라우저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는 항해사를 의미하는 내비게이터(navigator)라는 이름을 붙였고, 로고 또한 선박의 조타륜을 본떠 만들었다. 그 밖에도 포털(portal) 사이트는 항만을 뜻한다.

이처럼 많은 인터넷 용어가 바다에서 유래됐다. 왜 바다일까? 인류는 바다에서 삶을 일구며 일을 하고, 고기를 잡고, 유전을 찾고, 휴식을 취한다. 먼 옛날 모험가들이 바다 너머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지 않았다면 세상은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바다는 인류 역사에 무수한 영향을 미쳤다.

인터넷이 처음 개발됐을 때 사람들은 인터넷이 망망대해와 같다고 느꼈을 것이다. 인터넷 개발자들이 미지의 바다를 항해하는 모험가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면 바다와 인터넷은 닮은 점이 많다. 둘 다 우리 일상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도 마찬가지다.

선 물인 문화 씨

블로그(blog)

인터넷 유저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일기, 정보성 글 등을 자유롭게 게재하는 블로그 역시 로그(log)에서 유래된 웹로그(weblog)의 줄임말이다.

업로드·다운로드 (upload·download)

컴퓨터상에서 자료를 올리거나 내려받는 활동을 의미하며, 항구에 정박한 배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과정을 의미하는 용어에서 유래됐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Internet Explorer)

마이크로소프트가 1995년에 개발해 한때 전 세계 사용률 95%를 점유한 웹 브라우저다. 익스플로러는 탐험가, 항해사를 의미하는 명칭이다.

바다에서 온 인터넷 용어, 어떤 것이 있을까?

로그인·로그아웃 (login·logout)

로그(log)는 과거 선장·항해사가 항해일지를 기록한 '로그북(logbook)'에서 온 단어다. 특정 사이트에서 자신의 계정을 인증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로그인은 '로그북 기록을 시작함'을, 반대로 계정 인증을 끊는 로그아웃은 '로그북 기록을 끝냄'을 의미한다.

글 최선주 사진 정우철

물 좋은데
그냥 지나치면
섭섭하지~

묵호항수산시장

바닷빛이 유독 짙고 맑아서 물 좋기로 소문난 동네 동해 묵호.
그 안에서 잡아 올린 해산물은 말해 무엇하리오. 싱싱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지경이다. 그러니 올여름, 물오른 해산물을
제대로 맛보고 싶다면? 묵호항수산시장으로 가볼까.
후회 없는 선택이 될 테니!



묵호항 옆 그 시장

동해안에서 묵호항을 빼놓고 어업을 논할 수는 없다. 1937년에 개항하여 동해안 제1의 무역항으로 시작해, 지금은 동해안의 어업기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묵호항수산시장은 그 옆에 자리하고 있다. 인터넷 검색창에 '묵호항수산시장'이라고 검색하면 정확한 주소가 나오지 않는데, 동해시 수협수산물직매장에서 묵호항 자연산 활어센터 사이에 있는 구간이다. 알만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묵호항 옆 수산시장을 묵호항수산시장으로 부른다.
언제고 볼거리가 가득하지만, 묵호항수산시장을 찾을 계획이라면 이른 아침을 추천한다. 묵호항 바로 옆에 자리한 덕분에 아침 일찍 시장에 가면 금방 잡아 올린 싱싱한 횟감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뿐인가. 어민들이 잡아 온 생선을 경매하는 이색적인 풍경도 눈에 담을 수 있다.





소박하고 정겨운 매력이 좋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시장의 모습도 많이 바뀌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어시장'의 모습에서 벗어나 건물부터 내부 시설까지 깔끔하게 새로 단장하는 어시장이 늘고 있다. 이런 모습도 물론 좋지만, 좌판에 제철 해산물을 올려놓고 손님들을 기다리는 어시장이 줄어들어 아쉽기도 하다.

하지만 묵호항수산시장에서는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생선 좋아요, 맛있어요~"라며 싱싱한 골뱅이, 대게, 고등어를 가지런히 정리해 두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연세 지긋한 상인들의 모습에서 정겨움이 느껴지기 때문. 금세 구경을 마칠 만큼 작지만, 규모가 크고 번화한 다른 지역의 어시장에서는 느낄 수 없는 소박함이 특별하게 다가온다.

"여행 올 때마다 그 동네의 시장 구경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묵호항수산시장은 어릴 적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사람 냄새나거든요." 여름휴가로만 4번째 묵호를 찾았다는 한 여행객은 묵호항수산시장의 분위기를 카메라에 담으며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싱싱한 해산물은 말해 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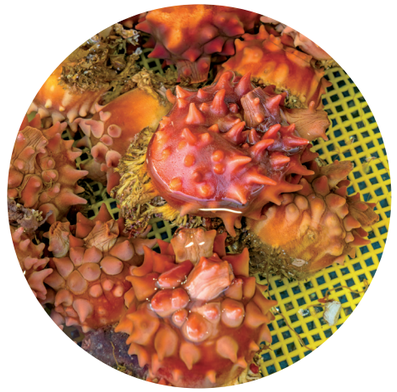
어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활기도 있다. 보라수산, 선장수산, 고모네 등 저마다의 간판을 걸고, 손님들의 주문에 따라 수조에서 해산물을 꺼내는 상인들의 바쁜 움직임이 묵호항수산시장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시장 곳곳에 있는 회를 직접 썰어주는 가게들은 손님들과 여행객들의 발을 절로 멈추게 한다. 상인들의 손이 한번 스치고 나면 싱싱한 회가 나오는 진귀한 광경에 여행객들은 자리를 잡고 그 모습을 구경하느라 바쁘다. 참고로 가게에서 바로 회를 썰어주기도 하고, 구매한 해산물을 맛있게 요리해 주는 식당을 안내해 주기도 하니 취향대로 이용해 보기를 바란다. 방법은 다를지라도 오징어, 복어류, 가자미, 광어, 우럭, 노래미, 고등어, 멍게, 문어 등 동해에서 직접 잡은 자연산 해산물이라면 충분히 만족스러울 것이다.

어민들의 삶이 시작되는 묵호항부터, 다양한 건어물을 파는 건어물 상점, 곳곳에 자리한 해산물 맛집까지. 고개를 돌리면 색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묵호항수산시장. 올여름, 바다 생각이 간절해질 때쯤, 이곳을 찾는다면 꽤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묵호항수산시장에서 먹어볼 만한 '물 좋은 해산물'



오징어

오징어에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고루 포함되어 있다. 이맘때 묵호를 찾으면 오징어물회를 파는 식당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 별미다. 새콤하고 칼로리도 적은 데다가 시원하기까지 해 인기다.



노래미

광어 못지않게 사람들이 횟감으로 많이 찾는 노래미.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다.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이 느껴져 다이어트에도 좋다.



골뱅이

여름철 묵호항수산시장에 가면 골뱅이를 파는 어민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동해골뱅이는 크기도 크고 맛이 좋아 묵호항수산시장에서 잘 팔리는 해산물 중 하나라고 한다.





글 박영화 사진 정우철

진정한 밥도둑, 갈치조림 어머, 나 갈치조림 좋아하네?

동해안회대게도매센터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여서 좋은 점은 멋진 바다 풍경을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생선구이, 물회, 대게찜, 꽃게탕, 오징어볶음 등 풍성한 해산물로 요리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만난 해산물 요리는 매콤달콤한 양념으로 요리한 갈치조림! 어머, 이거 밥도둑이 따로없네?

동해안회대게도매센터 033-533-4474

그거 알아? 여름엔 갈치래

'칼치'. 갈치의 옛 이름이다. 생김새가 긴 칼을 닮았기 때문이라는데, 한자 이름도 '칼 도' 자가 들어간 도어(刀魚)다. 외국에서도 옛날 선원이나 해적들이 쓰던 칼(cutlass·커트러스)을 떠올려 커트러스피시(cutlassfish)라고 불렀다.

눈부신 은빛의 찰랑찰랑한 자태를 뽐내며 우아하게 춤을 추는 듯한 갈치! 생선 중에서도 비린 맛이 덜하고 살이 부드러워 세대를 불문하고 좋아하는 갈치가 제철을 맞았다. 7월부터 많이 잡히는데 이맘때의 갈치는 살이 통통하고 맛도 담백하다. 요리 방법도 다양해서 살아있는 갈치는 회로 먹고, 갈치조림이나 갈치찌개, 갈칫국, 갈치구이 등으로도 즐길 수 있다.

갈치는 맛뿐만 아니라 오메가3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건강에도 좋다. 오메가3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중성지방을 개선해 혈압을 안정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단백질도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 발육에 탁월하다. 이 외에도 갈치는 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A,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DHA, 뼈 질환 예방에 좋은 칼슘과 인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영양만점 생선이다.

갈치조림에 밥 한 공기 뚝딱!

모든 것이 완벽한 갈치를 맛볼 수 있는 곳을 찾았으니, 바로 쪽빛 바다가 펼쳐진 동해의 묵호항이다. 해산물의 집산지인 묵호항에는 싱싱한 해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어시장과 그 해산물로 요리한 식당이 즐비하다.

많고 많은 식당 중 찾은 곳은 동해안회대게도매센터. 묵호항 근처에서 30여 년 운영해 오고 있는 백년가게다. 사장님이 서울에서 횟집을 하다가 고향 강원도로 내려와 동해안회대게도매센터를 차렸다고 한다. 한자리에서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킨 만큼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회와 대게 전문점이지만, 매콤한 갈치조림은 사장님이 자신 있게 선보이는 메뉴다. 토막 낸 갈치를 도톰하게 썬 무와 감자 위에 올리고 매콤한 양념을 끼얹어 자작하게 끓이면 완성되는 갈치조림. 조리법은 여느 식당과 다르지 않지만, 사장님만의 비율로 완성한 달짝지근하면서도 매콤한 양념이 갈치와 무, 감자에 골고루 배어 입맛을 사로잡는다. 그야말로 밥도둑이 따로 없다. 묵은지볶음, 명란젓, 고추장아찌 등 반찬만으로도 밥 한 공기 뚝딱 비워낼 수 있는 맛집이다.





KOMSA NEWS

SUMMER 202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주요 소식

대국민 고객만족도 조사 최고등급 '우수' 달성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3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등급인 '우수'를 달성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해마다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서비스 대국민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품질을 혁신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45개 기관(24.6%)이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여기에 2년 연속 등급 상승이라는 쾌거도 이뤘다. 공단은 전 영역(전반적 고객만족, 서비스 품질, 사회적 책임, 성과 등)에서 우수한 달성도를 기록했다.

23년도 직무급 신규도입 최우수 기관 선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에서 직무급(직무 특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직무등급을 구분·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신규 도입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직무급을 신규 도입한 기관은 총 54곳으로, 이 가운데 공단을 포함한 2개 기관이 신규 도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공단 등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해양안전 특별 대책본부 기간, 어선 등 2,371척 특별 점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봄철 성어기 잇단 어선 사고와 관련해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양안전 특별 대책본부'를 운영한 결과, 원거리 조업 어선 등 총 2,371척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단은 선박 축전지 상태가 불량한 어선 소유자에게 출항 전 즉시 교체를 요청하는 등 선박의 작동과 원활한 기관시동을 수시로 확인해 선박 기관손상 등으로 인한 2차 사고 예방에 주력했다.

통영시와 남해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지난 5월 16일 통영시와 남해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향후 전국을 4개 권역별로 관할하는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중소선박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는 ▲남해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부지 조성 및 인·허가 행정지원 ▲원스톱 선박검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어업인의 편의제공 ▲해양레저산업 고도화 ▲해양관련 기술교육 지원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등의 내용이 담겼다.

KOMSA NET WORK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바다를 즐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해양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종 본사 안내

044) 330-

이사장	T.2200~1	F.2352
기획조정실	T.2210	F.2353
성과혁신실	T.2410	F.2466
경영본부장	T.2203	F.2352
인재경영실	T.2220	F.2354
운영지원실	T.2230	F.2357
정보보안실	T.2500	F.2355
해양교통본부장	T.2205	F.2352
교통정책실	T.2300	F.2309
해양안전실	T.2340	F.2339
해양환경실	T.2250	F.2365
기술연구소장	T.2550	F.2352
안전연구실	T.2450	F.2461
선박탄소중립실	T.2556	F.2366
검사본부장	T.2204	F.2352
검사관리실	T.2260	F.2358
검사기준실	T.2270	F.2359
미래사업실	T.2560	F.2359
운항본부장	T.2206	F.2352
운항정책실	T.2381	F.2379
운항상황센터	T.2670	F.2389
감사실	T.2320	F.2364
노동조합	T.2360	F.2367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고객의 현장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검사제도 관련 불편 사항이나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검사기준실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27(아름동)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실
TEL. 044-330-2271~2277
FAX. 044-330-2359
E-mail. it@komsa.or.kr

지사 안내

인천지사(032)
T. 764-6181~3 **F.** 764-6184

인천운항관리센터(032)
T. 889-3945~54
F. 889-4061

당진지사(041)
T. 358-8697~8
F. 358-8641

서울출장소(02)
T. 2671-7838~9 **F.** 2671-7841

속초출장소(033)
T. 635-5394 **F.** 631-6002

동해지사(033)
T. 535-8091, 8093 **F.** 535-8094

동해운항관리센터(033)
T. 534-8437~9 **F.** 534-8440

태안지사(041)
T. 674-5447~8
F. 674-5449

세종본사(044)
T. 330-2380 **F.** 330-2357

중부지사(044)
T. 330-2285 F. 330-2363

포항지사(054)
T. 246-5394~5 **F.** 246-5396

포항운항관리센터(054)
T. 256-9784~7 **F.** 256-9788

보령지사(041)
T. 933-3981, 5863 **F.** 932-1855

보령운항관리센터(041)
T. 931-9083~6 **F.** 931-9087

울산지사(052)
T. 261-6124~34 **F.** 265-5394

군산지사(063)
T. 452-8187~8 **F.** 452-8189

군산운항관리센터(063)
T. 471-7486~9 **F.** 471-7490

부산지사(051)
T. 638-6221~3 **F.** 638-6226

부산운항관리센터(051)
T. 469-8425~6 **F.** 469-8427

목포지사(061)
T. 245-6142~4 **F.** 245-6145

목포운항관리센터(061)
T. 247-9457~66
F. 247-9594

여수지사(061)
T. 654-5262~3 **F.** 654-5265

여수운항관리센터(061)
T. 662-9713~8 **F.** 662-9719

사천지사(055)
T. 833-5394, 4998 **F.** 832-1484

창원지사(055)
T. 222/246-6774 **F.** 246-7838

통영지사(055)
T. 646-6011 **F.** 644-8661

통영운항관리센터(055)
T. 649-8432~6 **F.** 649-8438

완도지사(061)
T. 554-1474, 1480
F. 554-0069

완도운항관리센터(061)
T. 555-4023~8 **F.** 555-4029

제주지사(064)
T. 721-7401~2 **F.** 702-7404

제주운항관리센터(064)
T. 759-9780~3 **F.** 759-9786

고흥지사(061)
T. 843~4-5394
F. 844-1369

고흥운항관리센터(061)
T. 844-9012~3
F. 844-9014

본사로 오시는 길



해안선 뉴스레터 구독하고 선물 받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소식지 <해안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뉴스레터 구독하기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참여 방법

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웹진을 접속한다.

② 우측 상단의 구독하기 버튼을 누른다.

③ 개인 이메일과 연락처를 입력한 후 정보 제공에 동의하기를 누른다.

④ 구독 신청 완료하기 누르면 끝!

참여 기간

2024년 8월 30일(금)까지

당첨 인원

10명(랜덤 추첨)

당첨 선물

GS편의점 상품권(1만 원)

선물 발송

이벤트 마감 후 일주일 내 당첨자 개별 발송
(※ 미당첨자는 별도 공지 없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해안선> 보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계간으로 발행되는 <해안선>을 보고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더 나은 <해안선>을 만들겠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해서
독자 의견을 남겨주세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국민과 함께합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2024. 5.1~7.31



신고 대상 정부지원금(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밖에 상당한 반대급부없이 제공되는 금품 등)을 부정청구한 경우

신고방법 청렴포털, 방문접수, 우편 **상담안내** 국번없이 **110**번, **1398**번

부정청구의 유형

허위 청구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 청구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목적 외 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밖에 정부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